

# “3년내 메이저리그 서겠다”

### 진흥고 출신 괴물 투수 정영일 오는 26일 에인절스 캠프 합류

“3년 안에 메이저리그에 서는 걸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짜릿하고 기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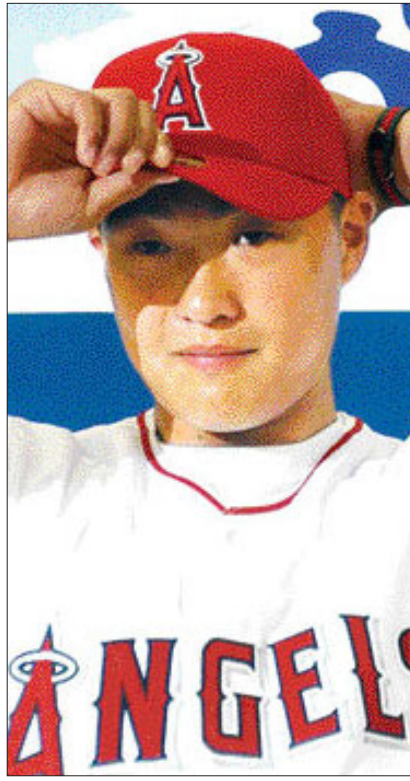
지난 해 미국프로야구 LA 에인절스에 입단한 ‘괴물’ 투수 정영일(19·진흥고 졸업)은 스프링캠프 합류를 보름 가까이 앞둔 13일 ‘에이 메이저리거’로서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정영일은 오는 26일 에인절스 캠프가 차려진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로 혼자 떠난다.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스프링캠프는 기량을 평가받는 시험무대다. 코칭스태프에 어떤 인상을 심어주느냐에 따라 인생창로 자체가 달라진다.

188cm, 96kg의 좋은 체격에 지구 최고 구속 149km의 빠른 공을 장착한 우완 정영일 투수는 지난 해 7월 계약금 135만 달러를 받고 에인절스에 입단했다.

지난 해 4월 대통령배 경기기와 1회전에서 13.2이닝 동안 국내 고교 사상 최다인 삼진 23개를 잡아내며 무려 242개의



공을 뿌려 어깨를 너무 혹사시킨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을 정도의 ‘무쇠팔’을 지니고 있다.

그는 국내 구단 KIA 타이거즈에 1차 지명을 받고도 끝내 미국행을 선택했다.

작년 11월 에인절스 교육리그를 다녀온 그는 올 시즌을 마이너리그 싱글A에서 시작하는 게 목표다.

그는 “교육리그 참가 직전에 에인절스 타디움에서 3경기를 관전했는데 5만여 관객이 기립박수를 치는 걸 보고 반드시 ‘꿈의 무대’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해병대식 지옥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키 리그나 싱글A 중 어디서 시작할 지 잘 모르지만 이번 시즌을 제일 높은 (하이)싱글A에서 마쳤으면 좋겠다. 부상 없이 코칭스태프의 지도를 잘 받아 3년 안에 메이저리거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지난 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5번으로 에인절스에 지명된 재미동포 포수 최현(19·미국명 헝크 공)에 대해서는 “작년 교육리그 때 같은 방을 쓰면서 최초의 한국인 메이저리그 베테리가 되자고 약속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최현과 계속 전화 통화하며 영어 실력도 쌓고 우정을 나눴다.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하기 때문에 미국 생활이 빨리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KIA 디 전훈 캠프를 가다

미야자키=박진표 기자



# 돌아온 유격수 홍세완 ‘OK’

### 체중 줄이고 최상의 컨디션 유지

### 타격감도 살아나 중심타선 기대

“홍반장이 돌아왔다.”

‘홍반장’ 홍세완(29·KIA·내야수·사진)이 일본 스프링캠프에서 부활의 휘파람을 불고 있다.

서정환 KIA 감독은 “홍세완의 수비 자세를 보면 현재 몸 컨디션은 최고”라며 “홍세완의 가담으로 내야진 구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며 흡족해 했다.

KIA는 최근들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내야진의 훈련 포지션을 일부 수정했다.

당초 2루수엔 손지환(29)과 김중국(34)이, 유격수엔 이현곤(27)과 김연훈(23)이, 3루수엔 홍세완과 김주형(22)이 배치됐으나, 최근 홍세완이 ‘수비의 꽃’으로 불리는 유격수로 자리를 옮겼다. 유격수에 있던 이현곤(27)은 3루수와 유격수를 오가고 있다.

홍세완이 유격수로 귀환했다는 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유격수는 화려한 개인기보다도 철저한 기본기가 필요한 포지션으로 내야 수비의 핵으로 불리는 자리다.

몸놀림이 둔하거나 수비 감각이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단 한번의 실수로 한 경기를 망칠 수 있는 중요 포지션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격수는 팀에서 내야 수비가 가장 뛰어나고 안정적인 선수들이 맡는 게 일반적이다.

홍세완의 원래 포지션은 입단 첫해부터 유격수였다.

2000년 해태(현 KIA)에 입단한 홍세완은 프로 데뷔 4년만인 2003년 유격수로의 역대 최초로 한 시즌 100타점을 돌파하며 한국 야구사를 새롭게 썼다.

한 시즌 100타점은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35홈런을 때린 장종훈(한화 코치)이나 ‘바람의 아들’ 이종범(36·KIA)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磨)라고 했던가.

홍세완은 대기록 수립 이후 3년동안 부상의 악몽에 시달렸다. 허리, 무릎, 팔꿈치 등 안 아프곳이 없었다. 그의 이름 앞엔 어느새 ‘홍반장’ 대신 ‘중환병원’이란 별명이 붙어 다녔다.

그러나 홍세완은 “올 시즌은 분명 다르다”고 말한다.

홍세완은 지난해 10월 정규 시즌 마감 이후 팀에서 마련해준 ‘몸 만들기’ 프로그램을 100% 소화한 덕분에 입단 후 가장 좋았던 2003년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물무게도 지난 2003년과 비슷한 90kg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통통했던 불살도 속 빠졌다.



부상의 아픔을 딛고 3년만에 스프링캠프에 합류한 홍세완은 “모든 게 정상이다. 아픈 곳도 없다”면서 “올 시즌은 팀이 꼭 ‘V1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서 감독은 현 상태만 유지한다면 홍세완을 불박이 유격수로 활용할 생각이다. 서 감독은 “(홍)세완이는 찬스에 매우 강한 선수다. 일부에선 홍세완에 대한 미련을 그만 펼쳐내라고도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홍)세완의 타격감도 살아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 줄 생각이다. 타선에서 5번 자리에만 버티 준다면 화려한 공격수도 해볼 만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끝>

/ lucky@kwangju.co.kr



“우리도 질주한다”

13일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하이원스키장에서 열린 2007강원도 IPC대륙간컵 알파인스키대회 첫날 슈퍼대회전 시팅부문에 출전한 국가대표 이환경이 멋진 폼으로 슬로프를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메이저리거들 주전 경쟁 돌입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투수와 타자들이 16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일제히 시작되는 스프링캠프에서 올해 풀타임 메이저리거가 되기 위한 수능을 치른다.

▲그레이트프루트 리그(플로리다)

박찬호(34·뉴욕 메츠)는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루이스 캠프로 16일 이동한다.

기본 연봉이 60만 달러로 199이닝 이상을 채워야 300만 달러를 받는 박찬호는 ‘제3선발’ 자리를 굳히려면 특유의 강속구와 노련한 피칭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1년 연봉 120만달러에 재계약한 서재응(30·탬파베이)은 세인트피터즈버그에서 후배 최희섭(28·탬파베이)과 담금질에 들어간다.

### 박찬호·김병현·서재응 등 16일부터 스프링 캠프 합류

서재응은 작년 호투에도 팀 타선 지원 부족 탓에 3승12패, 방어율 5.33으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스캇 카즈미어와 케세이 포섬에 이은 3선발을 꿰차려면 정교한 컨트롤이 뒷받침된 공을 뿌려야 한다.

윈터헤이븐에서 캠프를 여는 추신수(25·클리블랜드)도 베테랑 트루트 니슨의 영입으로 입지가 좁아진만큼 주전 한 자리를 낙점받기 위해선 날카로운 타격 실력을 뽐내야 한다.

▲캐러스트리그(애리조나)

‘기회의 땅’ 애리조나에 스프링캠프를 차린 김병현(28·콜로라도 로키스)은 우완 로드리고 로페스가 가세하면서 선발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애런 쿡, 제프 프란시스, 조시 포그가 1~3선발을 맡는 상황에서 김병현은 로페스, 테일러 버크홀츠 등과 선발진에서 경쟁해야 한다.

또 지난 해 막판 오른쪽 팔염증으로 60일 짜리 부상자명단에 올랐지만 4승1패(방어율 3.67)를 기록한 백차승(27·시애틀 매리너스)과 메이저리그 무대에 섰던 유재국(24·시카고 컵스)도 선발과 불펜 투수로 인정받기 위해 캠프에 올인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타자-김진우, 포수-한기주?

KIA 스프링 캠프에서 투수 김진우와 한기주가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을 틈타 타자와 포수로 변신했다. 투수 역할은 용병 에셔튼이 맡았다. 타자로 나선 김진우의 타격하는 모습은 진지한 반면 포수 한기주는 뒤에서 웃으며 서 있다.

## 최경주 16일 PGA 닷산오픈 출전

시즌 초반 상승세가 꺾인 ‘한국산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스타 워즈’에서 반전을 노린다.

최경주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16일(이하 한국시간)부터 19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리베라골프장(파71·7천260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닷산

오픈에 출전한다.

초반 2개 대회에서 연속 ‘톱10’에 입성했지만 최근 2개 대회에서 컷오프와 공동 65위에 그친 최경주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올해 닷산오픈은 메이저대회 못지않은 화려한 출전 선수 명단을 자랑하는 ‘별

들의 전쟁’이 됐다.

세계랭킹 10결 가운데 1위 타이거 우즈(미국)와 9위 헨릭 스텐슨(스웨덴) 등 2명을 제외한 짐 퓨릭(미국·2위), 애덤 스콧(호주·3위), 필 미켈슨(미국·4위), 어니 엘스(남아공·5위), 레티프 구센(남아공·6위), 비제이 싱(피지·7위), 루크 도널드(잉글랜드·8위), 파드리크 해링턴(아일랜드·10위) 등 8명이 출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